

West Kowloon Cultural District

May, 2018 | 김지선 에디터



하버 아트 스컬처 파크. 김홍석의 Boarlike Construction(2012) 설치 전경.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e Gallery
Image provided by Hong Kong Arts Centre

West Kowloon Cultural District

택시가 홍콩 섬과 구룡반도를 잇는 웨스턴 터널을 지나 거대한 공사장에 들어섰다. 저 멀리 하버 시티 연안이 펼쳐지고 높다랗게 철골이 솟아 있는 건물에서 많은 이들이 바빠 움직이고 있었다. M+ 파빌리온에서 진행 중인 홍콩 작가 삼손 영의 전시 포스터를 보기 전까지는 택시에서 내릴 염두도 나지 않았다. 2008년 홍콩 정부 주도 하에 개발이 시작된 웨스트 카운털치럴 디스트릭트(West Kowloon Cultural District)는 구룡연안반도에 들어설 예정인 40헥타르 규모의 예술, 교육, 호텔, 사무실, 거주지가 이루어진 문화 구역이다. 그 가운데 지난 몇 년 동안 미술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시각예술 전시 공간 M+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미술관으로 향후 5년 안에 개관할 것이다. 건물이 지어지는 동안 M+의 큐레이터들은 컬렉션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홍콩에서 가장 중요한 작가인 이레네 초우, 맥시코 작가 가브리엘 오르조코, 현대미술의 아이콘 마르셀 뒤샹의 작품을 인수했다. 갤러리 안에 실제 운영되는 편의점 체인 OXXO 매장을 들여다 놓은 오르조코 작품의 경우 일부는 작가의 기부로 인수가 이뤄졌다. 6년 전에는 중국 현대미술품을 집중적으로 수집해 온 스웨덴인 컬렉터 유리 지그가 가격으로 환산하면 1950억원에 달하는 미술품을 기증했다. 이와 같은 사실이 M+에 대해 미술계가 거는 기대를 빙충한다. 헬멧을 쓰고 안전화를 신은 채 M+의 내부를 투어하며 만난 부관장 겸 수석 큐레이터 정도연이 말했다. “이거 은 지 4년 만 됐어요. 출근 첫 주에 웨이츠크&드 뫼퐁이 디자인 경쟁을 통해 미술관의 건축가로 선정돼 디자인 워크숍을 시작했죠. 미술관의 자음을 함께한다는 것, 큐레이터로서 누구에게나 쉽게 주어지는 기회는 아닌 것 같아요.” 미술관의 시작을 목격한 관란적으로서 아시아의 혁신적인 목소리를 들려줄 M+에 거는 기대가 크지 않을 수 없다. ‘시티 파크’ 개념을 기반으로 설계된 서구풍문화지구에는 M+가 큐레이션한 조각작품을 만날 수 있는 아트 파크가 들어서려 예정이다. 그보다 앞서 올해부터 완성이 하버 프린트에는 홍콩 최초의 국제조각공원 프로젝트인 하버 아트 스킨프저 파크(Harbour Arts Sculpture Park)가 개장했다. 2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19명 작가들의 조각 작품이 완성이 지역의 스카이라인을 수놓았다. 빅토리아 항구 주변을 거닐던 누구에게나 열린 ‘경계 없는 미술관’이었다. 이 프



M+ 파빌리온 조감도
Courtesy of West Kowloon
Cultural District Authority

로젝트의 공동 큐레이터이자 영국 로열 아카데미의 아티스트 디렉터인 팀 말로는 말한다.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멋진 스카이라인을 자랑하는 이곳에 다채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료, 문화적 경험, 연령 및 지위가 각기 다른 다양한 예술가를 선정하는 일은 내게 특권이자 즐거움이었습니다. 예술과 항구, 도시, 대중 간에 뜻깊고 즐거운 상호작용이 방대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의 바람대로 잔디 위에 우뚝 솟은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의 거대한 분홍색 프로그래밍 조각 ‘스레기봉지도 조합된 몸은 일상적인 물건의 형태와 의미에 대해 식별적이고 신선한 의구심을 선사했다. 두 작가 외에도 트레이시 에민, 앤서니 고틀리, 제니 홀저 등의 세계적인 작가들이 참여한 이번 프로젝트에는 참여 아티스트 가운데 1/4이 홍콩 출신으로 기대한아트 플랫폼을 지역 예술가들과 공유하는 의미 또한 지닌다. 이 프로젝트는 하루이튿에 생겨난 것이 아니다. 2005년 예술과 공공 상소를 주제로 한 홍콩 최초의 국제 심포지엄 ‘Soul of the City’가 시작되었고 10여 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 “이번 프로젝트는 홍콩에 대한 많은 예술의 장을 마련하고 이 도시와 이의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를 위한 기회를 만들고자 한 오래된 비전의 일부”라는 팀 말로의 말처럼 올해 홍콩을 찾은 모든 이들이 경험한 홍콩 아트 신의 발전과 다채로운은 오래전부터 기반을 다졌은 덕분에 가능했다. ■ 인터뷰: 김지선 에디터 / 인문: 김지선 에디터 / 김지선